

◆ 북미

- 2008 미국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
- 미국, 50~60대를 위한 건강보험상품 판매 강화
- 텍사스 보험국, 인종차별 보험상품 보험금 조정

◆ 유럽

- Swiss Re,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10억 달러 손실
- IPCC, 지구온난화 경고한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 발표
- XL Insurance, Swiss Re의 컨설팅 부문 GAPS 인수

◆ 일본

- 일본 국제협력은행,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기상보험 개발 참여
- 대형손보사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진으로 수입보험료 감소
- 대형손보사들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발표

◆ 중국

- 중국보험시장 본격적인 상승기 진입
-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이한 중국
- 텐진 빈하이신구 보험업 종대개혁 시험무대로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2008 미국 손해보험 보험료 전망

- 보험계리, 리스크 관리 전문회사인 Watson Wyatt는 2008년 미국 손해보험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(D&O Liability)에서의 수익성 향상 기초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.
 - 또한 경쟁심화와 리스크 보유능력 향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적어도 현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Watson Wyatt는 지적함.
 - 지난 몇 년간 손해보험산업은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낮추어 왔으며 내년에도 약 5~10%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.
 - 손해보험 시장의 이러한 환경은 보험상품의 구매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.

- 산재보험(worker's compensation), 임원배상책임보험, 재보험 등도 연성의 시장상태(soft market condition)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.
 - 산재보험 또한 높은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고 시장이 연성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5%정도 인하되거나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 산재보험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예측모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- 손해보험산업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8년은 리스크관리 프로그램과 보험상품 구조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Watson Wyatt는 지적함.
 - 이는 리스크 관리 방법을 변경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.

(Insurance Journal, 11/16)

□ 미국, 50~60대를 위한 건강보험상품 판매 강화

- AARP Publ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50~64세 사이 인구의 14%에 해당하는 700만 이상의 사람들이 2005년 현재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 -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과 감원 등의 이유로 인해 직장단체보험을 잃고 있으며, 이들은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특히 보험 미가입자가 되기 쉬움.
 - 단체보험과 달리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나이와 진료기록 등이 고려되는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50~64세인 사람들이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.
(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의료보험인 Medicare에 가입됨.)
 - 소비자 단체를 이끄는 Betsy Imholz는 “보험사가 우수고객만을 선별하는데 대한 어떠한 법적 제제도 없다”고 지적함.
-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은 조기은퇴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기은퇴자를 위한 보험시장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.
 - 최근 여러 보험사들이 50~64세를 위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함.
 - 예를 들어 Aetna사는 내년 1월부터 50~64세의 사람들을 겨냥한 개인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며, Humana사는 올 4월부터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젊은이들과 보험가입이 곤란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.
 - Humana의 한 간부는 “베이비붐 세대들은 상당히 부유한 집단이며 조기퇴직과 함께 개인보험 가입을 원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”고 밝힘.

(Insurance News Net, 11/21)

□ 텍사스 보험국, 인종차별 보험상품 보험금 조정

- 텍사스주 보험 감독기관은 과거 백인보다 흑인에게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었던 보험에 가입한 흑인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Americo Life사와 합의하였음.
- 텍사스 보험국은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(NAIC)를 대신하여 5개 주에서 대표 협상자로서 합의를 주도함.
- 이번 합의가 적용되는 5개 주들은 문제가 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곳들로 텍사스, 조지아, 플로리다, 캘리포니아, 오하이오 등임.
- 이들 상품들은 Americo를 통해 직접 판매되지 않았고 Americo와 제휴한 많은 보험사들에서 판매되었으며 55개에 달하는 판매사의 리스트는 텍사스 보험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- 비록 인종에 근거해 가격이 결정되던 보험은 1960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었으나 그 이전에 판매된 많은 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은 조정되지 않고 남아있음.
- 이번 합의사항은 리스트에 기재된 보험사에 의해 1928년부터 1959년 사이에 판매되었으며 195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유효했던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됨.
- 이번 합의를 통해, 간이 생명보험(industrial life) 또는 장례(burial) 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며 흑인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하고 낮은 보상을 제공했던 생명보험 상품들의 액면 보험금액이 조정될 것임.
- 문제가 되는 보험의 가입자임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액면 보험금의 25%를 부가하여 지급하게 됨.

(Insurance News Net, 11/15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Swiss Re,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10억 달러 손실

-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신용위기 여파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하여 12억 스위스 프랑(약 10.7억달러)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스위스리는 발표문을 통해 은행, 보험회사 및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타격을 입힌 신용위기의 강도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며, 포트폴리오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에서 이와 같은 손실을 보았다고 밝힘.
- 손실은 2개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(CDS) 판매에서 비롯된 것으로,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부채담보부증권(CDO) 형태의 자산유동화채권(ABS)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디폴트 위험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임.
- 스위스리는 또한 ABS 자산담보부증권(CDO)의 보유 가치를 '0'으로 추정했으며,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보유가치도 원래 가치의 62%로 하향 조정함.
 - 기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하여도 재조정하였으며,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는 현재 36억 스위스 프랑(32.2억 달러)으로 조정됨.
- 서브프라임 손실 영향으로 스위스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, 스위스리는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주식매수 청구를 진행중이며, 주당순이익(ERP)과 자기자본이익률(ROE)의 13% 증가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함.

(Reuters, 11/19)

□ IPCC, 지구온난화 경고한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 발표

- WMO(세계기상기구)와 UNEP(유엔환경프로그램)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인 IPCC(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)는 지난 17일 “2007 기후변화”라는 4번째 평가보고서를 발표함.
 - 동 보고서는 앞선 올해의 3개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하였고, 데이터를 첨가하였으며, “기후 온난화의 심각성”을 강조하고 있음.

- 보고서는 전세계에서 방출한 이산화탄소 등으로 지난 100년간 지구온도가 0.7도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도가 1.5~2.5도 상승하면 생물의 30%가 멸종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하였음.
 - 기온이 3도 이상 오르면 해수면이 상승해 전 세계 해안의 30%가 침수 위험에 빠지고,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홍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수면의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켰으며,
 -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7m 상승하고,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6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음.
 - 또한, 지역별로 받게 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2020년 아프리카에서는 7500만~2억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, 2030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함.

- IPCC의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은 IPCC 총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으며, 반 총장은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2월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논의시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힘.

- 한편 IPCC 보고서는 "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변화에 대비·적응하려는 노력이 상호 보완될 때에만 피해를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다"고 결론내림.

(Insurance Journal, 11/19)

□ XL Insurance, Swiss Re의 컨설팅 부문 GAPS 인수

- XL Capital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벌 보험회사 XL Insurance는 최근 컨설팅 서비스 회사인 GAPS(Global Asset Protection Services) LLC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Swiss Re와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2007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.
 - GAPS는 손실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, 글로벌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나 보험브로커사, 위험관리자들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위험관리 해법을 제시해 왔음.
- GAPS의 조직과 XL사의 손실보호서비스 부문은 XL GAPS의 형태로 합병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미국, 유럽, 아시아, 호주를 중심으로 150명 이상의 기술직을 거느릴 것임.
 - XL GAPS는 XL사의 독립 언더라이팅 부문으로 남게 될 것이며 기존고객 뿐 아니라 XL사의 고객에게 동일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.
- XL사의 회장인 Clive Tobin은 “GAPS는 우리의 기존 손실보호서비스 부문과 전략적으로 적합한 파트너이며 이번 인수로 인해 손실보호관련 시장과 원보험사업자로서 2가지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”고 밝혔으며,
- 두 조직 모두 고객에게 고품질의 위험관리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공통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 XL사 직원의 평균 경력이 17년 이상인 전문가임을 강조하며, 엔지니어링 전문가와 최고수준의 기술이 결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.
- 한편, Swiss Re의 Globals & Large Risks 부문 책임자는 GAPS의 고객과 직원을 맡길 수 있는 인수자를 찾게 되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함.

(PR Newswire, 11/19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일본 국제협력은행,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기상보험 개발 참여

- 일본의 국제협력은행(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)은 지난 11월 22일 개발도상국이 이상이변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「기상보험」을 민간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함.
- 손해사정이 필요 없는 기후보험은 2008년 판매를 시작할 계획으로 기상 이변에 따르는 농가의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기후보험은 이미 미국과 유럽, 일본에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, 일본 각 지방의 기온이나 강수량, 적설량 등과 같은 20년 이상의 기상 데이터를 기초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.
- 예를 들면, 기온 변화에 의해 매출이 좌우되는 의료 및 식품의 매출 품목에 대해 기온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리거나 올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함.
- 다만, 개발도상국의 기상 데이터의 집적이 불충분하거나, 보험료가 비싸면 농가를 담보하기에 곤란함.
- 이 때문에 보험료를 개발도상국 정부나 국제기관이 지원한다든지, 개발도상국의 보험회사가 맡은 기상보험을 선진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게 됨.
- 독일의 재보험회사인 원헨Re의 전망에 의하면, 2040년에는 매년 1조달러(약 110조엔)의 이상기후 피해가 예측되며, 일본 정부는 내년 주요 8개국(G8)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 지원을 밝힐 방침임.

(산케이신문, 11/22)

□ 대형손보사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진으로 수입보험료 감소

- 일본에서 영업중인 대형 손해보험회사(상위 9개사)의 2007년도 상반기 결산실적에 의하면 주력인 자동차보험의 판매 침체로 인하여 손보재팬 등 6개 손해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다만, 당기순이익은 자산운용환경의 개선으로 도쿄해상니치도(東京海上日動)화재보험(이하 도쿄해상) 등 6사에서 자산운용수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 - 닛세이도화(日生同和)손해보험의 한 임원은 각사의 골칫거리였던 보험금의 미지급문제에 대해서는 「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」고 밝힘.
 - 작년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화재보험의 이케다 상무도 「보험의 유지율이 악화되고 있지만, 금년 봄부터 개선되고 있다」라고 안도함.
- 보험사업의 영업실적을 나타내는 보험영업손익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적고, 도쿄해상과 니혼코아(日本興亜)손해보험이 흑자로 전환하는 등 5개 회사에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남.
 -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어 이자배당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면에서도 개선을 나타내었으나,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도쿄해상, 아이오이손해보험, 닛세이도화손해보험을 제외한 6개 회사에서 감소함.
 - 무사고 할인의 확대로 보험가격의 할인 폭이 커졌으며, 상반기 일본에서 신차판매대수가 27만대에 불과하는 등 자동차 판매의 부진도 원수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.
-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의 이케다 상무는 일본의 보험시장 전망에 대해 「성숙시장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」고 말함.
 - 한편, 타 손해보험회사의 한 임원은 「일본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길도 있다」고 말하는 등 보험시장재편의 가능성도 내비침.

(FujiSankei Business I, 11/21)

□ 대형손보사들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발표

- 일본에서 영업중인 대형 손해보험회사(상위 6개사)는 지난 20일 2007년도 상반기 중간 결산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투자잔액과 손실을 발표함.
 - 아이오이손해보험은 2007년 9월말 기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가 1154억 엔이라고 발표함.
 - 이 중 CDO(채무담보 증권) 관련 투자가 1114억엔, SIV(Structured Investment Vehicle, 구조화투자회사) 관련 투자가 40억엔이었고, 아이오이손해보험의 2007년도 상반기 평가손은 252억엔임.
 - 아이오이의 2007년도 상반기 연결 당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24.4% 증가한 102억 엔이며, 2008년도 말 순이익 전망은 전년대비 1.9% 증가한 165억엔으로 종전의 전망치를 유지함.

- 손보재팬은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액은 없지만, 서브프라임 관련 CDO(부채담보부증권)의 원금 상환 보증업무에서 2400억엔의 인수잔액이 있다고 밝힘.
 - 2007년도 상반기까지 보험금의 지급은 없지만, 하반기 이후, 보험사고의 지급 리스크를 300억엔으로 전망함.
 - 미래아홀딩스는 9월말 기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가 269억엔으로 발표하였고 이 중 RMBS(주거용모기지증권)이 12억엔, 헤지펀드가 15억엔, CDO가 80억엔, 지급보장보험이 162억엔으로 나타남.
 - 미츠이스미토모(三井住友)해상화재보험의 상반기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금융보증으로 11억엔, 헤지펀드 투자 3000만엔으로 나타남. 9월말에는 관련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함.
 - 니혼코아(日本興亞)손해보험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는 CDO 1건에서 잔고가 10억 엔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, 닛세이도화손해험은 서브프라임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(일본 로이터, 11/20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국보험시장 본격적인 상승기 진입

- 평안증권(平安證券) 금융산업 분석가에 따르면, 중국 보험시장은 최근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으며, 향후 금리인상의 수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, 현재 과점형태의 시장상황은 단기간 내에 변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남.
 - 위 분석가는 또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, 특히 소매금융시장의 전망을 더욱 밝게 보고 있으며, 생명보험이 대표적인 소매금융에 속한다고 말함.
 - 중국 금융시장은 당분간 생명보험으로 대표되는 소매금융 시장의 발전에 따른 규모확대가 예상되고 있음.
 - 다양한 각도에서 중국보험시장을 분석한 결과, 현 중국보험시장은 미국의 1940년대, 일본의 1960년대, 대만의 1980년대 수준이며, 이들 3개국은 이 때가 바로 보험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던 시기로 기록돼 있음.

-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관리시장에서 보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보험회사는 전통업무가 안정적인 수준에 진입한 후 자산관리 분야의 신규업무 창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.
 - 아직까지 보험회사 투자의 핵심은 채권투자이며, 채권투자수익은 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역시 보험업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.
 -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손익분기점은 평균 13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, 중국 보험회사의 경우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에 따른 것임.

(증권시보, 11/19)

□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이한 중국

- 중국 보감위는 최근 연금보험을 이용하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<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업무관리방법>을 발표함.
 - 중국사회가 충분히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 사회를 맞이함으로써 사회발전 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기 때문임.
 - 유엔인구학회의 기준에 따르면, 중국은 2000년에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1.43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1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 비율은 오는 2020년에 17.2%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진국과는 달리 국가가 아직 충분한 부를 축적하기 전에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현재 중국은 연금보험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임.
 - 중국의 연금보험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연금보험, 기업차원에서 준비하는 기업보충연금보험, 개인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상업연금보험 등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음.
 - 하지만 지역과 계층간 차이가 워낙 커 전면적인 실행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2006년 말 현재 약 2.8억 명의 도시인구 중 기본연금보험 수혜자는 1.88억 명에 불과하며, 농촌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역시 5,237만 명으로 전체 농촌인구의 7.2%에 불과한 상태임.
 - 개인적으로 상업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, 각급 보험회사가 2006년 한 해동안 거두어들인 연금보험료는 626억 위안으로 전체 GDP의 0.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(신화망, 11/22)

□ 텐진 빈하이신구 보험업 중대개혁 시험무대로

- 텐진(天津) 빈하이신구(濱海新區)는 후진타오(胡錦濤)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개발구이며, 이곳 빈하이신구가 최근 보감위에 의해 ‘중국보험개혁시범구’로 지정되었음.
 -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, 보험업무, 보험시장, 보험개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규모 개혁작업의 시범무대로 활용될 예정임.

- 빈하이신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개혁 시범적용 내용은 아래 4가지를 포함하고 있음.
 - 1) 시장주체의 선진화로 시장발전 활력을 증대시킨다.
 - 2) 시장업무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보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.
 - 3) 자금운용 영역을 확대개방함으로써 자금운용 효율을 향상시킨다.
 - 4) 정책지원체계를 완벽화 함으로써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.

- 텐진시 보감위에 따르면, 텐진시에는 현재 각종 중개기구 86개를 포함, 411개사가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, 금년 10월까지 이들 보험회사가 거두어들인 보험료는 123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 - 보감위와 텐진시는 실력있는 보험회사를 적극 유치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빈하이신구에서 보험산업이 크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.
 -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전문화, 규범화, 시장화로 보험회사 자금운용 효율을 극대화 함과 동시에, 지방법규 제정으로 대규모 세제지원을 모색함으로써 개발구 입주 보험회사가 보험업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,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임.

(중국경제시보, 11/22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6년말	07.11.9(금)	07.11.16(금)	07.11.23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4.92	5.34	5.46	5.62	0.16
	美 10년국채	4.71	4.22	4.17	4.00	-0.17
	英 10년국채	4.73	4.74	4.63	4.56	-0.07
	日 10년국채	1.68	1.54	1.48	1.42	-0.06
주가	韓 KOSPI	1,434.46	1,990.47	1,926.20	1,772.88	-7.96%
	韓 KOSDAQ	606.15	779.04	755.29	700.68	-7.23%
	美 DJIA	12,463.15	13,042.74	13,176.79	12,980.88	-1.49%
	美 Nasdaq	2,415.29	2,627.94	2,637.24	2,596.60	-1.54%
	英 FTSE	6,240.90	6,304.90	6,291.20	6,262.10	-0.46%
	獨 DAX	6,596.92	7,812.40	7,612.26	7,608.96	-0.04%
	佛 CAC40	5,541.76	5,524.18	5,523.63	5,521.17	-0.04%
	日 Nikkei225	17,225.83	15,583.42	15,154.61	14,888.77	-1.75%
	中 상해종합	2,675.47	5,315.54	5,316.27	5,032.13	-5.34%
	대만 가권	7,823.72	8,970.92	8,764.82	8,342.20	-4.82%
홍콩항셱	19,964.72	29,133.01	27,614.43	26,541.09	-3.89%	
환율	원/달러	929.60	907.80	915.80	930.80	15.00
	원/100엔	781.83	806.00	829.12	860.56	31.44
	엔/달러	118.90	112.63	110.45	107.93	-2.52
	달러/유로	1.3148	1.4676	1.4613	1.4804	0.02
	위안/달러	7.8135	7.4207	7.4220	7.4120	-0.01